

역사관광 1번지... 인프라 구축 '활발'

익산시 세계유산탐방센터 내년 완공... 백제왕도 핵심유적 활용한 기반시설 구축

익산시가 도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지역의 핵심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까지 병행해 문화도시 익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내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방침이다.

시는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마동지와 서동생가터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104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서동생가를 재현하고 연꽃단지과 수변데크를 조성하는 등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비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도심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도 한창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국비 182억을 포함 총 364억원을 투입해 국가등록문화재인 '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 과 등 록문화유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시·체험관, 방문자센터 등을 건립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은 물론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행정절차와 문화재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중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내비위 성당이 지닌 종교·문화·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감대건 신부의 최초 착지처 라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성지문화재협관을 건립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종교 체험과 전시, 연수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순례길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군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군산시가 기업 내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군산시청 소속 민간기업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환경을 조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교육과 위험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에서 교육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이행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위험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위험성평가 제

도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위험성평가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관철 신고 사례 등과 관련해 중대재해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뜨겁다"면서, "군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목적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한 군산', '근로자가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건설공사현장 관련 공무원 및 현장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및 '전북산업안전관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캠페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여름철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익산시가 여름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6일 시는 식품 판매업소 1,830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냉면,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소비 수요가 많은 식품을 판매하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기구 위생적 관리, 영업주·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비과류를 수거해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성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익산 라면 음악회

모금 물품 이웃들에 전달

나눔과 연대로 함께하는 익산 라면 음악회가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다.

17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익산 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 후원과 갈릴리교회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송홍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입장료가 라면 5봉지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라면 음악회는 문화공연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사랑나눔봉사단의 라면드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시는 행사에서 입장료로 받은 라면과 성금 생필품 등을 함께 모금해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송홍준 사랑나눔봉사단장은 "세상에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라면음악회를 기획했고 이러한 문화활동을 통해 인재양성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시, 치매치료관리비 최대 연 36만원 지원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연중 시행

군산시는 치매환자가 치매치료 및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해야 증증회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 개선이 가능한 질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매 치료제 장기 복용으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증빙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해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을 하면,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치매 약제비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120% 이하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돌봄에 필요한 위생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분께서는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군산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을 사진 등 록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도장 분실 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인감 변경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감 위·변조 사고와 위임 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위험성도 있다.

이에 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대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달리 위·변조 및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감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등록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이 편리하지만, 서명제도의 인식 부족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2023년 5월 말 기준 83%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시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군산기계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이·농장 회의 등 자생단체를 통해 이를 적극 알리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서동-선화 도시재생 꿈나무 발굴

익산시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참여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금마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꿈나무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서동-선화 도시재생 꿈나무' 2·3기 교육 수료식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부터 총 2회에 걸쳐 운영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금마초등학교 학생 총 142명이 참여해 △도시재생과 우리마을, 인근 마을(왕궁여산)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생태 등 이론 및 현장교육 △매운 내 용을 토대로 마을 그림지도, 생태 열서 및 풀꽃 열색, 서동선화 캐릭터 도예 등 체험교육 등의 주제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미래 모습을 제안하고 지역 꿈나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갑이 금마초등학교장은 "도시재생과 접목한 역사·문화·생태 교육을 통해 지역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색다른 교육의 가치를 확인했다"며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본 도시재생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어 도시재생 꿈나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립심 확대를 위해 교육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육을 통한 도시재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와 금마 고도지역 도시재생활장지원센터, 금마초등학교의 업무 협약으로 시작됐으며 총 10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익산=이재훈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